

제조업 근로자의 암 검진 관련 요인

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Rates of Manufacturing Workers

박수호¹⁾, 김창희²⁾, 김은경³⁾

¹영동대학교 간호학과, ²건양대학교 간호학과, ³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과

목적: 본 연구는 근로자의 암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,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근로자의 정기 암 검진에 대한 시행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암 검진율을 증진할 수 방안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.

방법: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재제조업에 종사하는 남녀 근로자 335명을 대상으로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검진율과 암검진에 대한 태도(7문항)를 확인하였고 Logistic 회귀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.

결과: 본 연구대상자의 암검진율은 위암이 72.5%, 대장암이 43%, 유방암, 자궁경부암이 68.6%였고 암 검진에 대한 태도는 평균 29.5점(범위 7-35점)였다.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규모 사업장의 암검진율이 5배 이상 높았으며, 암검진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았다. 암검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암 종류별로 확인한 결과 위암검진은 연령(50대 이상 근로자), 결혼상태(기혼자), 업종(휴대폰제조업), 근무기간(101개월 이상 근무자)이, 대장암검진은 연령(50대 이상), 결혼상태(기혼자), 업종(휴대폰제조업), 사업장규모(1,001명 이상 제조업), 태도가점수가 증가할수록 검진 가능성이 높았고, 유방암은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. 자궁경부암은 암 검진에 대한 태도가 낮을수록 검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: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검진율이 낮아 사업장 특성과 사업장 환경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하며 암 검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검진 교육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며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.